



이 천 용
「숲과 문화」 연구회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에 나타난 숲과 나무

저자 유홍준과의 첫 만남은 작년 2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불리우고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에서였다. 종묘는 「숲과 문화 연구회」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숲 탐방 대상지였는데 뜻밖에도 유교수가 참석하였다. 문화유산이 절대 우위인 종묘에서 그와 함께 숲을 돌아보는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주변의 숲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겨울 별이 따사로움을 주는 정전앞 월대위 계단에 앉아 미술사학적 측면에서 본 종묘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왜 종묘에는 참나무가 많은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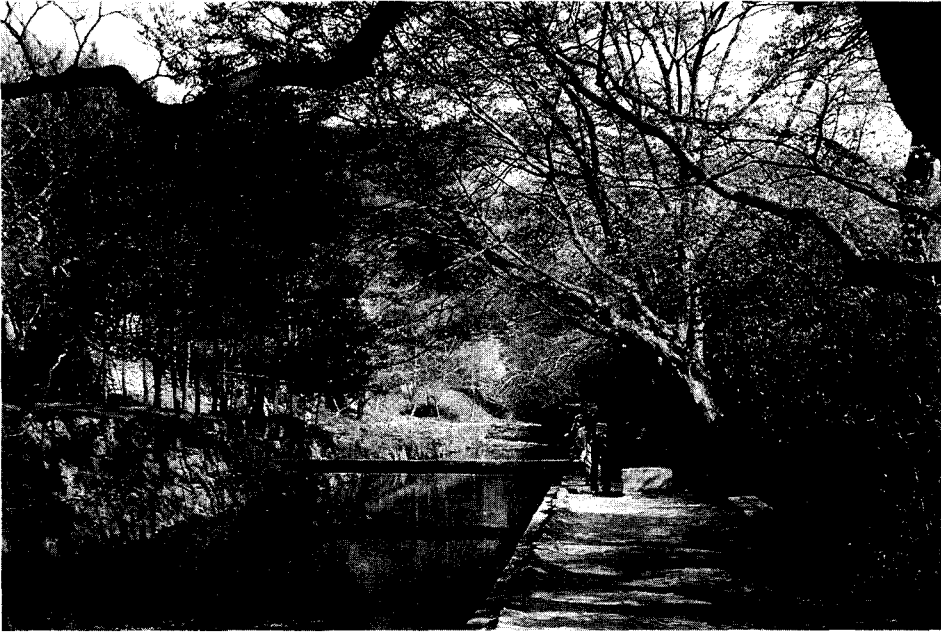
이렇게 그와 만남을 서두에 꺼낸 이유는 그가 이 책에서 「숲과 문화」를 언급하면서 참나무를 알았다고 썼기 때문이다. 그는 3권의 부제인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많은

것을 밝혔듯이, 생명이 있는 나무와 대화하는 임학도는 숲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는 임학도와 만난 후 나무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의 글에 많은 나무가 등장했으리라 믿고 싶다. 답사기에 나오는

나무는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은행나무, 단풍나무, 매화, 벚꽃, 동백나무, 칠죽, 밤나무, 참나무, 포플러 등으로 대부분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거나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아마도 말하지 않는 문화재의 어둡고 무뚝뚝한 면을 보



▶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3)'의 표지사진



◀가야산내 개심사의 불단풍

원하기 위해서 문화재 주변에 심은 나무를 표현한 것이리라. 문화유적지 주변의 숲이 어떻게 문화유산과 조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므로 답사지중 숲과 나무를 언급한 4곳을 중심으로 임학도의 의견을 붙이려 한다.

서산 가야산

백제문화권은 쉽게 답사장소로 택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대상이 없어 그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는데, 숲탐방 대상지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서해안이 가까울수록 지형이 완만하여 그럴듯한 숲이 드물다. 우리 연구회는 작년 공주대에 있는 윤영일 교수를 앞세워 서산 가야산의 숲과 주변 문화재를

보았다. 충남 문화권 숲탐방 행사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 여러 군데를 볼 욕심으로 문화재 답사가 일정에 많이 포함되었는데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숲 탐방을 우선해야 한다는 수구과와 문화재를 한 점이라도 더 보자는 회원사에서, 일정에 없는 마애삼존불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비약하여 이 행사가 숲 탐방이냐, 문화재 탐방이냐라는 지상논쟁까지 뜨겁게 불리 일으킨 적도 있었다.

여기서 문화재 답사와 숲 탐방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 정리하여 가야산 탐방을 계획한 임주훈 박사에게 보여주니 별로 동의하는 기색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하여 숲 탐방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각인코저 다음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문화재 답사와 숲 탐방의 차이점과 유사점

〈차이점〉		
유형 특성	문화재 답사	숲 탐방
스케일	작다	크다
지형	평탄구릉지	산악지
분야	인문사회	자연과학
증명	불확실	확실
대상	광범위	숲·나무등특정
분위기	고당적	서정적
취급	무생물	생물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 주변이 정숙해야 한다. · 사전지식이 요구된다. · 과학적이다. · 동류의식을 느낀다. 		

유 교수는 백제문화의 숨결과 향기가 그윽한 보원사터를 절이 없음에도 유난히 좋아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주변의 자연환경, 특히 가을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거

기에는 배경으로 깔린 구릉지와 숲이 보원사터를 아늑하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선조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구례 연곡사

두 번째 답사지인 구례 연곡사는 폐사 이유가 산림문화와 큰 관계가 있다. 연곡사는 왕가의 신주목(神主木: 제사때 쓰는 위패를 만드는 나무)을 봉납하는 곳으로서 절 주지가 밤나무 단지 관리자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말 밤나무를 마구 베어 울목봉산(栗木封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승려들이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 모두 도망가 버리니 당연히 절을 돌볼 수 없어 폐사되었다고 한다. 봉산이란 조선 숙종때부터 도입한 국가의 산림보호 제도로서 국가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산림을 기능적으로 세분하여 관리한 시책이다. 그러므로 울목봉산은 연곡사 근처의 밤나무 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된 숲을 가리키며 그 외 황장봉산, 향탄봉산, 진목봉산, 선재봉산, 삼산봉산 등이 있다. 이 지역은 밤나무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며 1996년에는 11억불을 수출하였으니 IMF시대에서는 상당히 효자인 셈이다. 그러나 조선조 말에는 밤나무가 절을 황폐하게 하였으니 그런 아이러니도 없다. 봉산

제도는 산림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좀 더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기사 산림 분야까지 다루면 우리 할 일이 없어지겠지만…….

구례 피아골은 아직도 원시성을 지닌 곳으로 아름답기가 그지 없는 곳이다. 탁광일 박사는 지리산 숲탐방기(‘숲과 문화’ 6권 3호)에서 생명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라 표현할 정도로 반한 곳이다. 유 교수는 피아골 자연에 대한 예찬론을 펴면서 새 할아버지를 소개한다. 평생 나무를 심었고, 지금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천적인 새를 돌보는 일을 하는 새 할아버지를 통하여 학문적인 연구도 좋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은근히 주장한다. 그 깊은 곳에 숲과 평생 살아 온 숲 노인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외경심을 느끼며, 한편 학문과 실천미학을 일종의 우화식으로 표현한 그의 재치가 이채롭다.

안동문화권

네 번째 답사지인 안동 풍산지방 이야기에서 드디어 숲과 문화동인과 종묘에서의 만남, 그리고 참나무를 언급하고 있다. 목재문화의 원조로서 가장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소개하였는데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더 오래된 국내 최고(最古)의 집인 극락전(국보 제15호)은 적어도 1363년에 중수되었으며 고구려

식 건축양식으로서 귀중하다고 한다. 참고로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에 사용한 목재는 느티나무라고 한다.

그는 봉정사 가는 길에서 참나무를 만나,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명언이 여기서도 회자된다. 그의 글을 인용해 보자. “일주문을 넘어서면 산길 좌우로는 해묵은 고목들이 높이 치솟아 하늘을 가리는데 그 나무가 참나무라는 사실이 차라리 놀랍다. 우리는 보통 야산에 즐비한 작은 참나무만 보아와서 참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숲 중에는 참나무가 최고이고, 철도 침목처럼 강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하는 것에는 참나무를 썼던 것을 생각하면 참나무가 왜 수많은 나무 중에서 ‘진목(眞木)’이란 뜻의 참나무라는 이름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참나무는 6종류가 있다. 생태학자인 임주훈 박사가 숲탐방 갈 때마다 그 형태적 차이를 설명하지만 비슷하여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나무이다. 마을 뒷산에 떡매를 맞아 배가 불룩한 상수리나무, 조금 더 올라가면 낮은 동산에 많이 있는 갈참나무, 산중턱이상에 나타나는 신갈나무, 잎과 도토리느낌이 작지만 목을 썬면 가장 맛있는 졸참나무, 나무껍질이 탄력이 있어 포도주 병마개로 쓰이는 굴참나무, 잎이 너무 커서 우산 대신 쓸 수 있는 떡갈나무로

구별하여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하회마을’은 안동관광의 명소로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민속촌이다. 특히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수려한 풍광은 ‘하회’를 당할 곳이 없다고 유교수는 말한다. 하회는 옛부터 유명한 주거지역인데 택리지에는 ‘바닷가에 사는 것은 강가에 사는 것만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은 냇가에 사는 것(溪居)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계지로서 영남의 ‘도산’과 ‘하회가 제일’이라고 하였다. 하회는 사행천인 花川(낙동강)으로 물결이 심히 구부러지는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하며 냇가에는 소나무림이 있다. 수해(水害)방비림이며 풍수에서는 비보림(裨補林)이라고 하는 인공으로 만든 마을 숲(洞藪)이다. 유교수는 김덕현의 말을 빌어 ‘동수란 마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숲’이라고 하여 학문적 용어보다 더 멋진 언어를 사용하였다. 풍수상 마을 앞의 개방된 공간이나 마을 앞의 물이 흘러나가는 출구(水口)를 막아주어야 길지가 된다고 하므로 수구를 막아주는 대표적 수단이 마을 숲이다. 다시 말해서 수구막이는 풍수적으로 수구를 막는 즉 지기(地氣)의 유출을 막는 시설인데, 지기란 물처럼 유동적이지만 물과는 다르게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즉 수구막이란 수구를 막아

물처럼 고인 지기를 통해 복을 얻으려고 조성한, 그리고 형국을 보완하기 위한 풍수적 목적의 비보림이다. 또 한가지 설명할 것은 마을 숲 즉 동수(洞藪)의 藪이다. 거의 처음 보는 용어인 수(藪)는 ‘수풀 수’로서 집단을 말하며, 흔히 쓰는 수(樹)는 ‘나무 수’로서 단목이 개념이므로 ‘초목이 뻐뻐이 우거진 수풀’이야말로 수구막이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수구막이는 하회의 풍산 류씨마을 뿐만 아니라 의성 김씨, 풍양 조씨 등 과거 쟁쟁한 세도가의 마을 앞에도 있다고 기억하면서 하회마을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에 힘과 권위를 더해준다는 마을 숲의 의미를 알 때 비로소 하회를 보았다고 고백하는 유교수의 정성이 고마울 뿐이다.

다음 답사지인 도산서원의 부제는 “저 매화나무 물 쥐라”인데 우선 나무가 나오는 제목인지라 관련성을 찾아 보았다. 퇴계선생이 가장 사랑한 나무가 ‘매화’라고 하며 인간적인 면을 ‘도산 달밤에 매화를 읊다’라는 시를 통하여 전하는 그의 수법은 독자에게 일체감을 형성시킨다. “밤기운 차가워라 창을 기대고 앉았자니/두동실 밝은 달이 매화가지에 오르누나/수다스레 가는 바람 불러오지 않더라도/맑은 향기 저절로 동산에 가득한걸”이라는 시에서 요즘 한창인 매화와 퇴계선생을 생각하게 한다. 이 글의 부제인 ‘매화나무에 물 쥐라’는 선생의 최

후 말씀이다.

도산서원의 도산서당 현판에 山字를 산의 형상으로 쓴 사진이 눈에 확 띄이며 도산서원 앞마당에서 보이는 낙동강 한가운데 소나무가 있는 작은 섬이 나타난다. 이곳은 원래 안동댐으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 소나무가 많은 백사장이었는데 정조임금 시절 응시자가 너무 많아 서원에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어 임시로 과거시험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때 시험문제를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시험을 치른 결과 답안지를 낸 사람이 3,632명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기념하여 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 시사단(詩社壇)이다. 소나무가 어떻게 우리 민족과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광경이다. 한편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산서원 경내를 빛내기 위해 심은 금송이 너무 자라 서당마루를 가린다고 성화다. 아마 일본 특산의 금송이 우리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때 문일 것이다. 베어낼 수 없다면 금송의 자람새를 보고 나뭇잎이 왜 금빛을 띠는지 잘 관찰하면서 신기함을 느끼면 그의 화가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도산서원의 답사방식에서 그가 주장한 다음과 같은 방법은 수목원 관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다. ‘도산서원의 답사는 무엇보다도 퇴계선생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마음이 있을 때 참

◀ 불국사 다보탑과 회랑 뒷편의 소나무 숲



뜻이 있다. 도산서원 유물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주차장 한쪽 넓은 터에 지어놓고 퇴계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기록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서당과 서원, 원림을 보여주어야 제대로 답사를 할 수 있다.’

경주 불국사

외국인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 어디를 먼저 보여 줄까 할 때 대부분 경주, 설악산, 제주도를 꼽는다. 이중 경주는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어 좋으며 특히 불국사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유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 건축은 사찰 건축이라는데 영주 부석사, 순천 선암사, 경주 불국사를 들며 세 개의 사찰이 자연과의 조화관계가 각각 특색이 있다고 한다. 그 중 불국사가 자연과 인공

을 대비시키면서 조화가 절묘한 절로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임주훈 박사는 경주 숲탐방기를 쓰면서 불국사 안마당에는 나무가 없다고 하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였는데 그 궁금증이 책에 써 있다. 불국사 안마당에는 꽃밭이 없다는 작은 제목의 글을 보면 불국사는 토함산 자락에 있으나 평지사찰 개념으로 경영하였고 화엄세계를 추구하는 교종의 사찰로서 불국토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부처님의 궁전이기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불국사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유교수가 분석하였으니 별 미련이 없다. 그러나 나는 255쪽 다보탑 배경에 보이는 소나무숲을 간과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면 숲에 대한 설명이 따르고 불국사라는 인공물과 어떻게 조화되어 절묘한지를 풀어 내었

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 아무리 보아도 문화적 식견이 짧은 나로서는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며

유홍준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3편을 읽자마자 글을 써야 감동 끝에 좋은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을 터인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조금씩 쓰려니 이야기구성이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무보다는 숲이 등장하는 4곳을 겨우 소개하였는데 사실 그곳을 가보았으면 더욱 생생한 감정을 전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숲과 문화의 관계는 체험으로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하여서도 설파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연구회의 목적이기도 하다.